

2016. 06. 27. ~ 07. 03. 주간

91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사과·배·복숭아 출하, 가격 전망, 착과, 생육
- 2016년 고추 생육상황 조사결과(1차)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쌀 가공식품 해외시장 공략 박차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지치 우량종자 안정생산을 위한 채종 적기 구명
- 2015년산 전남 농산물 소득분석 조사결과

정책동향

- 전남 서리강풍 피해 복구비 21억 확정
- 농업과 에너지가 만나 새로운 희망을

해외농업정보

- 베트남 신선딸기 시장동향 및 수출전략(하)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월 2~4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6~12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8

- ▶ 사과 출하, 가격 전망, 착과, 생육
- ▶ 배 출하, 가격 전망, 착과, 생육, 봉지수
- ▶ 복숭아 출하, 가격 전망, 착과, 생육
- ▶ 2016년 고추 생육상황 조사결과(1차)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5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7

- ▶ 여수시, 농민도 월급 받을 수 있는 농정 펼쳐나가
- ▶ 광양시, 대규모 라벤더 재배 성공 6차산업 발판 마련
- ▶ 곡성군, 새콤달콤 '플럼코트'
- ▶ 보성군, 참다래 껌양병 긴급 방제 현장 기술지원
- ▶ 강진군, 도·농 혁신운동 적극 나섰다
- ▶ 해남군, 우리밀 재배농가에 밀 생산 장려금 지원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3

- ▶ 우리 농식품, 중동 프리미엄마켓 공략 박차
- ▶ 쌀 가공식품 해외시장 공략 박차
- ▶ 담양 식품명인이 빛은 '르 갈롱' 롯데주류와 손잡고 중국·호주 수출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6

- ▶ 지치 우량종자 안정생산을 위한 채종 적기 구명
- ▶ 강황 유기재배에 알맞은 재식밀도
- ▶ 갯 재배를 위한 표준시용량 추천
- ▶ 갯기름나물 녹병 진단과 방제 적기
- ▶ 2015년산 전남 농산물 소득분석 조사결과
- ▶ 난지형 마늘 신품종 '단영'과 '마영' 육성
- ▶ 전남농기원, '어깨동무 컨설팅'기법 도입한다
- ▶ 더위에 잘 자라는 배추·무·상추 품종 평가 받아
- ▶ 농산물 식중독균 5종 1시간 내 검출한다

❁ 정책 동향 38

- ▶ 전남 서리강풍 피해 복구비 21억 확정
- ▶ 농업과 에너지가 만나 새로운 희망을
- ▶ 국립축산과학원·전남농기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전남농기원, 교실 밖 농촌선생님 전문성 키운다
- ▶ 농업용 면세유 관리강화 및 판매가격 투명화

▶ 베트남 신선딸기 시장동향 및 수출전략(하)

▶ 중국 외식업체, 한국산 김치·장류 구매 원해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6. 2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하였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 가격 또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인한 상품과 증권시장의 약화로 인해 전일 대비 0.7% 하락하여 마감하였음.
- 대두 :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의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미국산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9% 하락하여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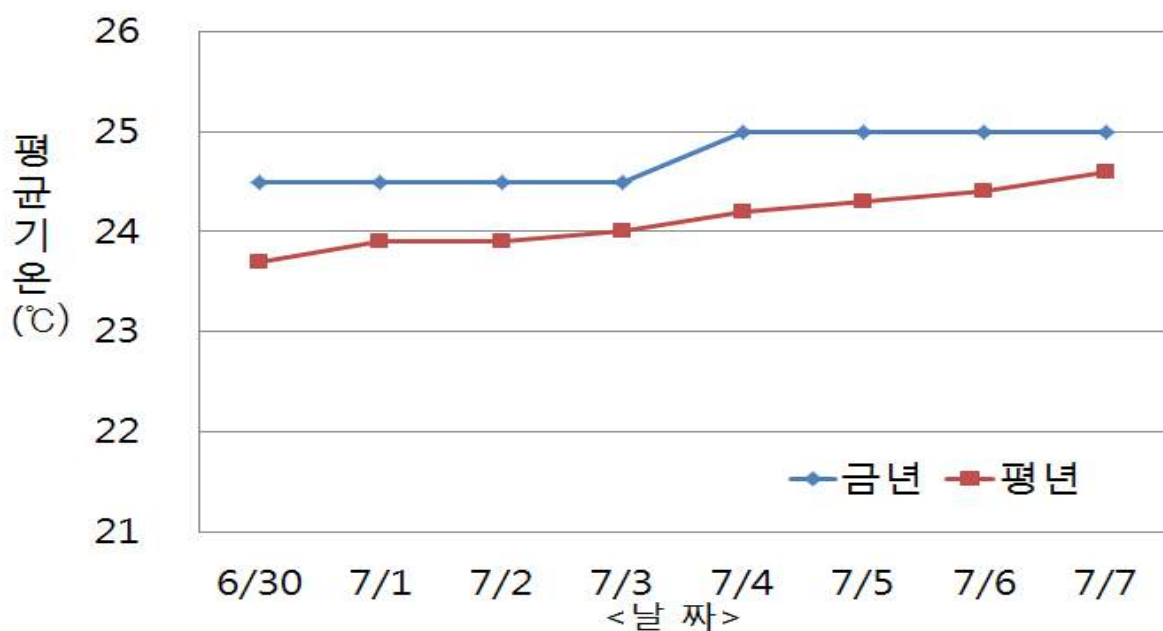
▶ 태풍 대비 농작물·시설물 관리요령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8	24.1	0.6	27.6	28.1	-0.5	21.9	21.2	0.7	9.4
6. 30.(목)	24.5	23.7	0.8	27.0	27.6	-0.6	22.0	20.7	1.3	9.6
7. 01.(금)	24.5	23.9	0.6	28.0	27.8	0.2	21.0	20.9	0.1	9.9
7. 02.(토)	24.5	23.9	0.6	27.0	27.7	-0.7	22.0	21.1	0.9	10.2
7. 03.(일)	24.5	24.0	0.5	27.0	27.8	-0.8	22.0	21.1	0.9	10.8
7. 04.(월)	25.0	24.2	0.8	28.0	28.0	0.0	22.0	21.3	0.7	8.4
7. 05.(화)	25.0	24.3	0.7	28.0	28.4	-0.4	22.0	21.3	0.7	9.3
7. 06.(수)	25.0	24.4	0.6	28.0	28.6	-0.6	22.0	21.3	0.7	8.1
7. 07.(목)	25.0	24.6	0.4	28.0	28.8	-0.8	22.0	21.5	0.5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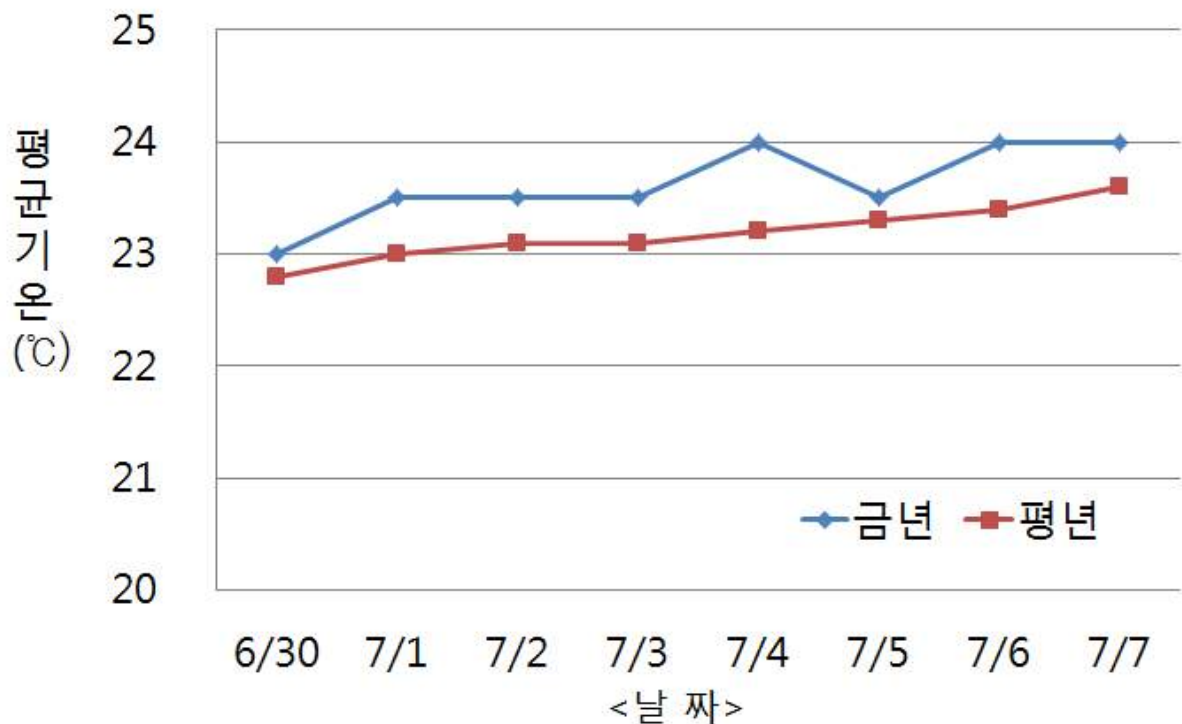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3.6	23.2	0.4	25.5	26.6	-1.1	21.8	20.7	1.0	7.9
6. 30.(목)	23.0	22.8	0.2	25.0	26.2	-1.2	21.0	20.3	0.7	8.5
7. 01.(금)	23.5	23.0	0.5	25.0	26.4	-1.4	22.0	20.5	1.5	8.2
7. 02.(토)	23.5	23.1	0.4	25.0	26.3	-1.3	22.0	20.7	1.3	9.0
7. 03.(일)	23.5	23.1	0.4	25.0	26.4	-1.4	22.0	20.7	1.3	8.8
7. 04.(월)	24.0	23.2	0.8	26.0	26.5	-0.5	22.0	20.8	1.2	7.4
7. 05.(화)	23.5	23.3	0.2	26.0	26.9	-0.9	21.0	20.8	0.2	7.8
7. 06.(수)	24.0	23.4	0.6	26.0	26.9	-0.9	22.0	20.9	1.1	7.2
7. 07.(목)	24.0	23.6	0.4	26.0	27.1	-1.1	22.0	21.0	1.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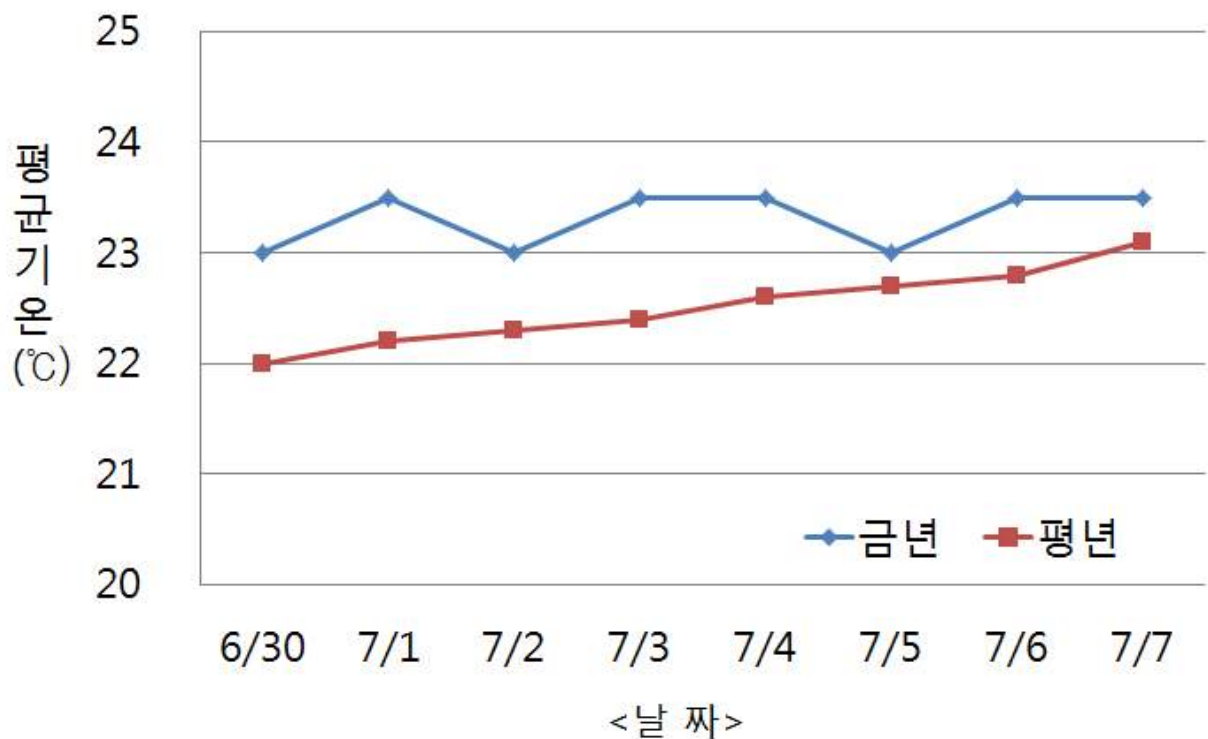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3.3	22.5	0.8	24.9	25.3	-0.4	21.8	20.6	1.2	9.6
6. 30.(목)	23.0	22.0	1.0	25.0	24.5	0.5	21.0	20.1	0.9	9.5
7. 01.(금)	23.5	22.2	1.3	25.0	24.8	0.2	22.0	20.3	1.7	9.1
7. 02.(토)	23.0	22.3	0.7	24.0	25.0	-1.0	22.0	20.4	1.6	10.1
7. 03.(일)	23.5	22.4	1.1	25.0	25.2	-0.2	22.0	20.5	1.5	10.6
7. 04.(월)	23.5	22.6	0.9	25.0	25.4	-0.4	22.0	20.6	1.4	9.3
7. 05.(화)	23.0	22.7	0.3	25.0	25.7	-0.7	21.0	20.7	0.3	9.4
7. 06.(수)	23.5	22.8	0.7	25.0	25.7	-0.7	22.0	20.8	1.2	10.0
7. 07.(목)	23.5	23.1	0.4	25.0	26.0	-1.0	22.0	21.0	1.0	9.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사과 출하, 가격 전망, 착과, 생육

□ 출하 전망 : 6월 이후 출하량 지난해보다 25% 많을 듯

- 2015년 7월 ~ 2016년 5월까지 출하된 사과 물량은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3% 많은 56만톤으로 추정된다.
- 6월 이후에도 여전히 저장물량이 많아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이후 출하량 전망

(단위 : 천톤, %)

	2015년산	2014년산	증감률
출하량	22.8	18.3	24.6

□ 가격 전망 : 6월에도 사과 가격 지난해 대비 약세 전망

- 6월 후지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3만 8천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9천 ~ 2만 1천원으로 전망된다.

□ 착과 : 올해 사과 착과수 지난해보다 5% 감소 추정

- 올해 사과 중심화 결실비율은 지난해보다 낮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과다 착과에 따른 저장양분 부족으로 수세가 약화되었고, 금년 개화기 저온피해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중심화의 결실이 지난해보다 다소 불량했기 때문이다.
- 단위면적당(10a) 사과 착과수(1차 적과)는 과다 착과였던 지난해보다 5% 적으나,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품종별로는 후지 착과수가 지난해보다 6% 적고, 쓰가루와 홍로는 각각 2~3%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생육 : 사과 생육 상당히 양호

- 5월말 기준, 사과 생육은 결실 후 적절한 강우로 기상여건이 좋아 지난해 및 평년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까지 병해충 발생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최근 복숭아순나방, 진딧물, 노린재 증식이 빠르고 발생량도 지난해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사전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 사과 생육상황

(단위 : %)

	좋음	비슷	나쁨
전년대비	62.3	32.4	5.3
평년대비	62.5	32.1	5.4

배 출하, 가격 전망, 착과, 생육, 봉지수

□ 출하 전망 : 6월 이후 출하량 지난해보다 39% 감소 전망

- 6월 이후 배 출하량은 잔여 저장량이 적어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8천톤으로 전망되며, 바람들이과와 품위가 낮은 배가 많아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6월 이후 출하량 전망

(단위 : 천 톤, %)

	2015년산	2014년산	증감률
출하량	7.9	12.9	-38.9

□ 가격 전망 : 6월 배 가격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6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3만 2천원)보다 높지만, 평년(5만 3천원)보다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 4만 4천원으로 전망된다.

❑ 착과 : 지난해보다 증가, 체외부돌출과 많아

- 올해 배 착과수는 저온피해로 착과가 불량했던 지난해보다 많고, 특히 저온피해가 심했던 영·호남지역의 착과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봄철 고온으로 체외부돌출과(숫배) 발생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적과를 상당량 하더라도 올해 배 모양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 지난해 대비 착과수

(단위 : %)

	많음	비슷	적음
경기·강원	43.6	25.3	31.1
충청	34.2	35.7	30.1
호남	85.3	11.3	3.5
영남	65.8	24.8	9.4

❑ 생육 : 배 생육 매우 양호

- 지난해에는 개화기 잦은 강우와 저온 등으로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착과가 불량하였고, 봄철 가뭄으로 초기 비대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봄철 기상 호조로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충청지역에서 개화기 강우와 저온으로 수정이 지난해보다 불량한 과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병해충 조사결과, 검은별무늬병(흑성병) 발생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고온으로 경북과 전남지역에서 복숭아순나방이 지난해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봉지수 : 지난해보다 11% 증가 전망

- 올해 배 단위면적(10a)당 봉지수는 착과수가 많아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충청지역이 지난해보다 각각 2% 증가했으며, 지난해에 저온피해가 심했던 호남과 영남지역은 각각 16,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위면적당(10a) 봉지수 증감률 전망

(단위 :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전년대비	2.2	1.6	16.4	20.0	10.8
평년대비	21.8	22.6	33.7	21.9	100.0

복숭아 출하, 가격 전망, 착과, 생육

□ 출하 전망 : 6월 출하시기 지난해보다 3일 빠르고, 출하량 증가 전망

- 올해 조생종 복숭아 첫 출하시기는 이른 개화로 인해 지난해보다 평균 3일 빠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강원지역이 지난해보다 5일 충청은 4일, 영남과 호남이 각각 3, 2일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 6월에 출하될 복숭아의 품질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좋을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히 양호할 전망이다.
- 6월 천도계 조생종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5%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저온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기상호조로 생육이 양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격 전망 : 6월 천도가격 지난해보다 하락 전망

- 6월 천도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2만 1천원)보다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8천 ~ 2만원으로 전망된다.

□ 착과 : 올해 착과수 지난해보다 3% 증가 전망

- 올해 전체 복숭아의 단위면적(10a)당 착과수는 지난해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천도계 복숭아의 착과수는 지난해 영남지역에서 개화기 저온피해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조생종 천도계의 착과수가 지난해보다 5%, 중·만생종은 각각 3, 4% 증가하였다.
- 유모계 복숭아의 착과수는 기상 피해가 없어 지난해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착과수 현황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 상주·의성 등 영남지역 착과수가 지난해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생육 : 해충 피해 적으나, 병 발생 많아

- 복숭아 생육은 전반적으로 기상이 양호하여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5월에 내린 강우로 세균성구멍병과 지난해에 이어 잎오갈병 발생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충 피해는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품종별 지난해 대비 생육상황

(단위 : %)

	좋음	비슷	나쁨
천도계	65.3	33.9	0.8
유모계	73.4	25.7	0.9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고추 생육상황 조사결과(1차)

□ 조사개요

- 조사일시 : 6월 16일
- 개 소 수 : 71개 시·군, 355개 관찰포
- 조사항목 : 키, 포기당 착과수
- 결과활용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연구·지도기관 등 수급안정 및 기술지원 자료 제공

□ 조사결과(전국 평균)

- 키 : 89.4cm (지난해보다 0.3cm 적고, 평년보다 1cm 큼)
- 포기당 착과수 : 25.1개 (지난해보다 0.7, 평년보다 2.7개 많음)

구 분	3.3㎡당 포기수	키(cm)	포기당 착과수(개)
금 년 (A)	9.3	72.5	9.8
전 년 (B)	9.6	70.8	8.5
평 년 (C)	9.9	68.8	7.5
전년대비(A-B)	△0.3	1.7	1.3
평년대비(A-C)	△0.6	3.7	2.3

□ 기상현황 및 작황분석

- 고추 정식기 이후 기상현황
 - 기 온 : 20.9℃ (평년보다 1.5℃ 높았음)
 - 강 수 량 : 40.2mm (평년대비 49.3mm 적었음)
- 작황분석 : 고추는 고온성 작물로 평년보다 높은 온도가 생육 및 착과수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고, 대부분 비닐멀칭을 하고 있어 강수량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았음

* 고추 생육 적정온도 25 ~ 28℃, 개화·결실 적정온도 18 ~ 23℃, 30℃ 이상은 수정, 결실이상 등 생리장해 초래

□ 생육단계 및 주요 기술지원 내용

○ 생육단계

- 2~4번과 착과 단계
- 1차 수확 예정 : 7월 상·중순
- 정식 (4월 하순~5월 상순) 이후, 1차 웃거름 주기 완료

○ 주요 기술지원 내용

- 헛골 부직포 및 짚 피복 : 토양습도 유지 및 제초효과



[부직포 피복]



[짚 피복]

* 온도가 낮은 시기에 부직포나 짚을 피복하면 토양온도가 낮아 초기 생육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므로 토양온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 부직포를 피복하도록 해야 함.

- 장마 및 태풍대비 개별 지주대 보강 및 고정끈 설치
- 논 재배 포장 침·관수 대비 배수로 정비
- 예방위주 탄저병, 역병, 해충방제 약제 살포
- 4월 하순 정식 포장 2차 웃거름 주기 실시 등

* 출처 : 농촌진흥청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6. 2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27)	1주일전 (06/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67	↓ 9.0	↓ 12.7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9,000	187,133	↑ 7.9	↓ 19.8
	고구마(밤)	10kg	30,200	31,000	30,760	37,400	37,627	↓ 19.3	↓ 19.7
	감자(수미)	20kg	21,000	22,000	38,640	28,800	23,653	↓ 27.1	↓ 11.2
채 소 류	배추(봄)	1kg	640	600	1,000	700	554	↓ 8.6	↑ 15.5
	양배추	10kg	6,900	7,400	12,040	7,875	5,213	↓ 12.4	↑ 32.4
	오이(다다기계통)	10kg	13,000	15,333	11,400	17,167	16,756	↓ 24.3	↓ 22.4
	애호박	8kg	12,600	16,000	10,720	13,350	12,220	↓ 5.6	↑ 3.1
	토마토	10kg	13,600	13,400	16,320	17,000	16,000	↓ 20.0	↓ 15.0
	당근	20kg	30,600	30,000	32,200	30,800	32,880	↓ 0.6	↓ 6.9
	건고추(화건)	60kg	710,000	710,000	710,000	820,000	834,000	↓ 13.4	↓ 14.9
	풋고추	10kg	35,200	36,600	38,720	37,000	32,957	↓ 4.9	↑ 6.8
	마늘(깐마늘)	20kg	174,000	180,000	175,000	112,250	105,703	↑ 55.0	↑ 64.6
	양파	20kg	13,800	14,000	14,600	20,400	15,360	↓ 32.4	↓ 10.2
	대파	1kg	1,740	1,840	2,202	2,335	1,527	↓ 25.5	↑ 13.9
	파프리카	5kg	13,400	14,200	17,120	15,250	20,533	↓ 12.1	↓ 34.7
	멜론	8kg	24,400	26,000	28,160	23,900	27,877	↑ 2.1	↓ 12.5
	방울토마토	5kg	12,200	12,200	14,800	12,300	12,367	↓ 0.8	↓ 1.4
	수박	1개	14,000	12,400	15,280	13,500	13,727	↑ 3.7	↑ 2.0
과 일	사과(후지)	10kg	38,000	36,000	37,000	45,200	54,667	↓ 15.9	↓ 30.5
	배(신고)	15kg	46,000	46,000	44,400	39,600	58,555	↑ 16.2	↓ 21.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27)	1주일전 (06/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6,000	536,000	527,000	532,000	558,667	↑ 0.8	↓ 4.1
	느타리버섯	2kg	14,800	15,200	13,200	16,950	13,480	↓ 12.7	↑ 9.8
	새송이버섯	2kg	7,800	7,600	7,840	8,600	8,027	↓ 9.3	↓ 2.8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44	7,658	7,479	6,861	6,150	↑ 14.3	↑ 27.5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26	2,190	2,051	2,133	2,167	↑ 9.0	↑ 7.3
	닭고기	1kg	5,729	5,551	5,539	5,756	5,749	↓ 0.5	↓ 0.3
	계란(특란)	30개	5,324	5,374	5,390	5,859	5,811	↓ 9.1	↓ 8.4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5	0.0	↑ 6.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6. 27.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923 천원	5,883 천원	4,041 천원	↑ 0.7	↑ 46.6
	거세	7,235 "	7,453 "	6,086 "	↓ 2.9	↑ 18.9
송아지 (6~7월)	암	3,239 "	3,207 "	1,762 "	↑ 1.0	↑ 83.8
	수	3,998 "	4,098 "	2,479 "	↓ 2.4	↑ 61.3
육우(600Kg)		3,323 "	3,375 "	3,360 "	↓ 1.5	↓ 1.1
젖소수송아지(7일령)		386 "	368 "	216 "	↑ 4.9	↑ 78.7
돼지(110kg)		428 "	482 "	455 "	↓ 11.2	↓ 5.9
육계(원/kg)		1,451 원	1,555 원	1,551 원	↓ 6.7	↓ 6.4
계란(원/특란10개)		1,024 "	949 "	1,305 "	↑ 7.9	↓ 21.5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 28.5

※ '15년 생산비(천원) : 한우송아지 3,236, 한우비육우(거세) 5,658,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농민도 월급 받을 수 있는 농정 펼쳐나가

- 소량 다품목 생산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펼쳐가는 『농민도 월급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여나가고 있다. 소량 다품목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도록 하는 장터인 로컬푸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지난해(2015년)에는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여수농협 우두점과 여천농협 죽림점을 개설, 금년에도 여천농협과 여수원에 농협에서 aT 공모사업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여수시에 총 5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 현재 로컬푸드 직거래 참여농가는 535농가로 일일평균 291농가가 출하하고 있으며, 월평균 고객 이용자는 73,434명으로 이는 여수시의 11만 8천세대의 절반이 넘는 62%에 해당한다.
- 또한 월매출액에 있어서도 200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64세대(22%), 100~200만원 미만 49세대(17%), 100만원 미만 농가가 178세대(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는 농민들의 경우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 대행이 이루어져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대규모 라벤더 재배 성공 6차산업 발판 마련

- 3개년 5억 6천여만원 투입, 라벤더 특화작물 재배로 그린투어리즘 실현 -

- 시는 광양읍 사곡리 사라실 마을 농업인들이 라벤더 영농조합을 결성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개발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 간 협업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라벤더 시험재배에 착수해 유럽의 지중해와 일부 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던 라벤더 재배에 대성공을 거뒀다.
- 광양시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매실·단감 등과 함께 라벤더를 특화작물로 육성해 시 농업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시는 이번 라벤더 시험재배의 성공을 계기로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고 현대사회의 트렌드인 도·농(도시+농촌)형 그린투어리즘 (Green tourism)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 간 5억 6천여만원을 투입해 4만여m²에 달하는 시험재배단지를 조성한다.
- 내년부터는 가공 산업단지를 구축해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증대에 나서고, 2018년부터 라벤더 경관을 활용하여 6차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호 매실원예과장은 이번 라벤더 시험재배 성공으로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성장·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으며, 라벤더 경관을 농가소득 뿐 아니라 광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 6차산업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새콤달콤 ‘플럼코트’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에서 작년 첫 수확에 성공한 ‘플럼코트’가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자두와 살구의 장점을 모아 만든 새로운 과종으로, 살구의 맛과 자두의 향기로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플럼코트를 틈새 소득과수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재배면적을 30ha 육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묘목대,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죽곡면에서 플럼코트를 재배하고 있는 유영열 씨는 “플럼코트는 몸에 좋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라 소비자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비가림 재배로 당도를 높일 예정이고, 다른 플럼코트 품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 곡성군 정규환 과수특작팀장은 “플럼코트는 먹기 편리하고, 맛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과일로 초여름 과일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 출처 : 곡성군



■ 보성군, 참다래 궤양병 긴급 방제 현장 기술지원

- 보성군은 겨울철 기온이 온화한 남부해안 읍·면의 지리적인 특성을 활용한 아열대 소득 작목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고품질 참다래 재배를 위해 궤양병 확산 방지 및 중점지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궤양병은 12~18℃에서 활발하게 생육하며, 25℃ 이상에서는 생육이 지연되므로 병징은 봄과 가을철 저온·비·다습상태에서 발현된다.
- 따라서 궤양병 특성상 기온이 높아지면 세력이 약해지는 6월 하순부터 방제 적기로 보고 궤양병 확산방지를 위해 참다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직원을 투입하여 현장지도 및 참다래 재배농가와 공동방제에 나서고 있다.
- 궤양병 증상을 살펴보면 잎에서는 노란테두리 점무늬, 급성 점무늬, 급성 잎마름 병반이 나타나고, 줄기에는 세균 유출액이 흐르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나무 전체가 말라죽는 세균성 병해충이다.
- 궤양병 감염 전에는 동제를 살포하고, 감염초기에는 병징 또는 세균 유출액이 보이는 곳으로부터 1~2m 안쪽에 건전하게 보이는 가지를 절단하여 제거하고,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여 궤양병의 진전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감염말기에는 뿌리까지 제거하고 토양 소독을 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5월 강풍에 의해 나무가 상처를 입고 병원균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정가위와 접목용 칼 등 농기자재와 사람의 과수원 출입 등에 의해 궤양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소독 및 출입을 통제하고 상처에는 반드시 도포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보성군

■ 강진군, 도·농 혁신운동 적극 나섰다

- 농업인과 도시민, 동반자 관계로 성장 기대 -

- 전남 강진군과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가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농 혁신을 위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추진에 나섰다.
-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대표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 교감과 인정을 나누며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자는 운동이다.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 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것이다.
- 기존의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이 일손 돕기와 기타사항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는 양방향 소통과 교류를 원칙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이에 따라 군은 '명예이장' 활동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추천기로 했으며 추천된 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농협 강진군 지부는 명예이장 위촉을 통해 기업의 유·무형 자원과 보유역량을 마을에 접목시켜 마을의 숙원사업 지원과 마을 소득창출 등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아울러 명예주민 소속 임직원은 개인 1명이 마을농가 1:1 결연을 통해 정기적인 마을 방문과 일손 돕기, 전화, 서신교환, 마을 농산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우리밀 재배농가에 밀 생산 장려금 지원

- 1억 6,700만원 예산 투입, 국산밀 안정적 생산 지원 -

- 해남군이 겨울철 보리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우리밀 재배농가에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 도비와 군비 1억 6,700만원을 투입해 실시하는 장려금 지원은 ha당 17만 2,000원, 농가당 2ha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40kg 한가마로 환산했을 때 가마당 1,700원 정도이다.
- 지원대상은 지역농협 및 유통업체 등 밀 수매업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밀 수매 후 계약이행 여부에 따라 생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밀은 보리보다 수확시기가 늦어 모내기가 다소 지연되고, 판매가격도 낮아 재배여건이 불리한 작목으로 적극적인 재배유도를 통한 국산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올해 신규로 국산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해남군은 올해 우리밀 자가수분 증진제 732ha에 5,500만원, 우리밀 수매용 백톤 구입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산밀 산업육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 한편 해남군의 2016년산 우리밀 재배면적은 1,344ha로 전국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 농식품, 중동 프리미엄마켓 공략 박차

- 농식품부·aT, UAE 아부다비 및 두바이에 안테나숍 개설... 올 연말까지 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6월 18일부터 올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의 최대 도시인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케이푸드 안테나숍(K-Food Antenna Shop)을 운영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을 집중 홍보한다. 안테나숍은 홍보나 시장·수요조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숍인숍 형태의 매장이다.
- 두바이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두바이몰에 위치한 웨이트로즈에 운영 중인 두바이 케이푸드 안테나숍에는 만두와 라면·스낵류 등 14개 품목이 전시되고 있다. 아부다비 안테나숍은 달마몰에 로드숍 형태(Road shop)로 문을 열었는데, 이곳에서는 장류와 면류·냉동식품 등 37개 품목이 판매 중이다.
- 전한영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이번에 개소된 안테나숍은 중동지역에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UAE를 중심으로 오는 11월에 열리는 두바이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와 같은 다양한 홍보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중동시장과 중국 내륙·동남아·동유럽·중남미 등 전세계 12개국에서 케이푸드 안테나숍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쌀 가공식품 해외시장 공략 박차

- 쌀가공식품협회, 해외 유통망 본격 확대... 대만 등지서 판촉·홍보 강화 -

-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쌀 소비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 대내외적으로 유통망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영역의 판매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 쌀가공식품협회는 최근 올해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등을 소개했는데, 특히 국내와 해외 각각에서 쌀 가공품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 국내에서는 쌀 가공식품의 편의점 입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편의점협회, 쌀가공식품협회가 함께 쌀 가공품을 주요 편의점에 입점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쌀 가공품의 편의점 입점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 이성주 협회 전무는 “간편식 트렌드에 맞춘 쌀 가공품이 편의점에 입점하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쌀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편의점 업계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발굴 및 개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시장도 공략한다. 대상국은 대만으로, 협회는 올해 7월(시티슈퍼)과 8월(까르푸) 총 26일 동안 현지 유통업체 매장에서 떡류·쌀면류·쌀과자·주류·조미식품 등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한국 쌀 가공식품 판촉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 온라인 영역의 판매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개최된 ‘쌀 가공식품 산업대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온라인 전시관을 열어 출품제품과 참가업체, 영상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쌀 가공품과 음료를 함께 제공하는 카페형 매장인 ‘쌀토리랑’의 온라인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협회는 올 8월 말 ‘2016 쌀 가공품 품평회 TOP10’을 선정하고, 9월 중에 시상식을 개최한다. 11월 이탈리아에서 개최하는 ‘글루텐 프리 엑스포(Gluten Free Expo 2016)’에도 국내 쌀가공식품업체들과 참가할 계획이다.
- 이성주 전무는 “국내 쌀 가공식품 분야의 육성을 위해 협회 자체적으로도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 및 DB 구축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담양 식품명인이 빚은 ‘르 깔롱’ 롯데주류와 손잡고 중국·호주 수출

- 제22호 양대수 식품명인이 롯데주류와 손잡고 클럽용 ‘르 깔롱’을 중국과 호주에 수출하기로 했다. ‘르 깔롱’은 담양의 특산물인 대나무에서 추출한 ‘죽력(竹瀝)’을 이용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전통주로 알코올 도수 30도에 용량은 720ml다.

* 출처 : 담양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지치 우량종자 안정생산을 위한 채종 적기 구명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지치 채종시기별 종실수량은 개화 후 45일<90일<60일<75일 순으로 착과수, 종실수가 많아 개화 후 30일(28kg/10a) 대비 1.5~1.9배 증수됨
- 생육 및 뿌리수량은 개화 후 30일에 비해 개화 후 45일과 60일 채종에서 생경엽중 2.3~4.0g/주, 상근중 비율 1~3%, 건근 수량도 2~4% 증대되었음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채종 및 건근 수량 861,160원/10a 소득증대 효과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 지치 종자구입비 : 80,000원 - 채종노력비 1인 2.2일×56,520=124,340원 - 계(A) : 204,34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 종자대 : 25.3kg(52.9-27.6)=885,500원 - 건근수량 : 6kg(164-158)=180,000원 - 계(B) : 1,065,500원
○ 추정수익액(B-A) = 861,160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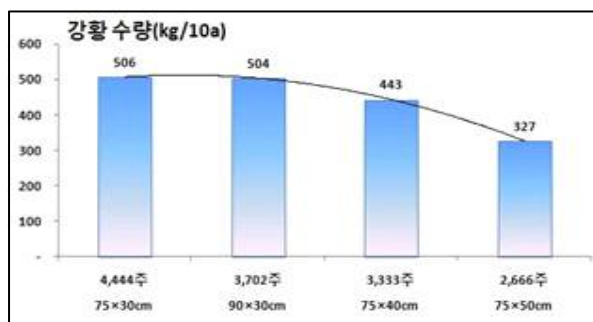
- 경운하기 전 부숙이 잘된 혼합유박 퇴비 600kg 시용하고 밑거름으로 질소 4, 인산 4, 칼리 4kg 살포, 질소 1, 칼리 2kg/10a씩 2회 추비함
- 두둑 90cm에 고랑 20cm로 깊게 만들어 흑색비닐이나 부직포로 정밀하게 피복하고 주간거리 30cm 조간거리 10cm 간격으로 4월 하순에 파종함
- 지치의 개화정도가 50% 개화되었을 때 개화 후 60일(9월 상순) 채종하면 개화 후 30일 채종(8월 상순, 종실 28, 건근중 : 158kg/10a)에 비해 종실량은 1.9배, 건근 수량은 4% 증수되어 채종 적기였음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 강황 유기재배에 알맞은 재식밀도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강황 유기재배에 적합한 재식밀도는 10a당 3,702주(180×30cm, 2열재배)와 4,444주(150×30cm, 2열재배)에서 증수되었음
- 강황 유기재배에 적합한 시비량은 생강 검정시비량의 2배 수준임
- 강황 품종은 통가와 보라강황 품종이 생육과 수량성이 높음



[강황 유기재배 재식밀도별 수량성]



[강황 품종]

□ 개발기술 기대효과

- 강황 유기재배 재식거리 75 ~ 90×30cm는 재식거리 75×40cm 대비(443kg) 10a당 수량 14% 증수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증가되는 비용 : 마대 등 재료 증가 - 마대 21개 × 440원 = 9,240원 - 인건비 0.1인 × 65,000원 = 8,125원 - 계(A) : 17,365원	○ 증가되는 이익 : 수량 증수 413kg - 수량 413kg × 2,500원 = 1,032,500원 - 계(B) : 1,032,500원
○ 추정수익액(B-A) = 1,015,135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강황 유기재배에 적합한 재식밀도는 10a당 3,702주와 4,444주에서 증수되며, 시비량은 생강 검정시비량의 2배 수준이 적합하였음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양승구, 신길호, 박신영, 서운원, 김현지

■ 갯 재배를 위한 표준시용량 추천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적용대상 : 일반 갯(청갯, 반청갯)
- 재배작형 : 노지 가을재배, 재배기간 45일 내외
- 표준 비료사용 추천량(2015)

밑거름(kg/10a)			웃거름(kg/10a)			합 계(kg/10a)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20.8	11.3	9.6	-	-	-	20.8	11.3	9.6

- 갯 가을 노지재배 (45일 내외 수확)는 단기재배로 밑거름 위주 비료 사용

○ 퇴비 이용시 비료사용 추천량

- 질소 12.6 - 인산 10.2 - 칼리 10.2 - 퇴비 1,500kg/10a
- 퇴비종류 : 퇴비(우분 60, 유기물 38, 질소 1.8, 인산 2.2, 칼리 1.7%)

□ 개발기술 기대효과

- 비료 적정 사용으로 농경지 양분 부하 예방 및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가능
- 친환경농산물 및 GAP 농산물인증을 위한 비료사용 기준 설정 자료제공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품종/재배시기 : 일반 갯(청갯, 반청갯)/가을재배(9월 중순~11월 중순)
- 재배방법 : 노지 산파 후, 재배 45일 내외 수확

○ 표준 비료사용 추천량

- 잣 가을 노지재배(45일 내외 수확 작형)는 단기재배로 밑거름 위주 시비
- 비료 양으로 요소 46, 용성인비 60, 염화칼리 16kg

○ 퇴비 이용시 비료사용 추천량

- 질소 12.6 - 인산 10.2 - 칼리 10.2 - 우분퇴비 1,500kg/10a
- 유효성분이 높은 돈분과 계분 퇴비는 작물별 시비처방기준의 퇴비 사용 요령에 따라 각각 퇴비 사용량의 22, 17% 해당량을 사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선국, 김현지, 김희권

■ 잣기름나물 녹병 진단과 방제 적기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병징과 병원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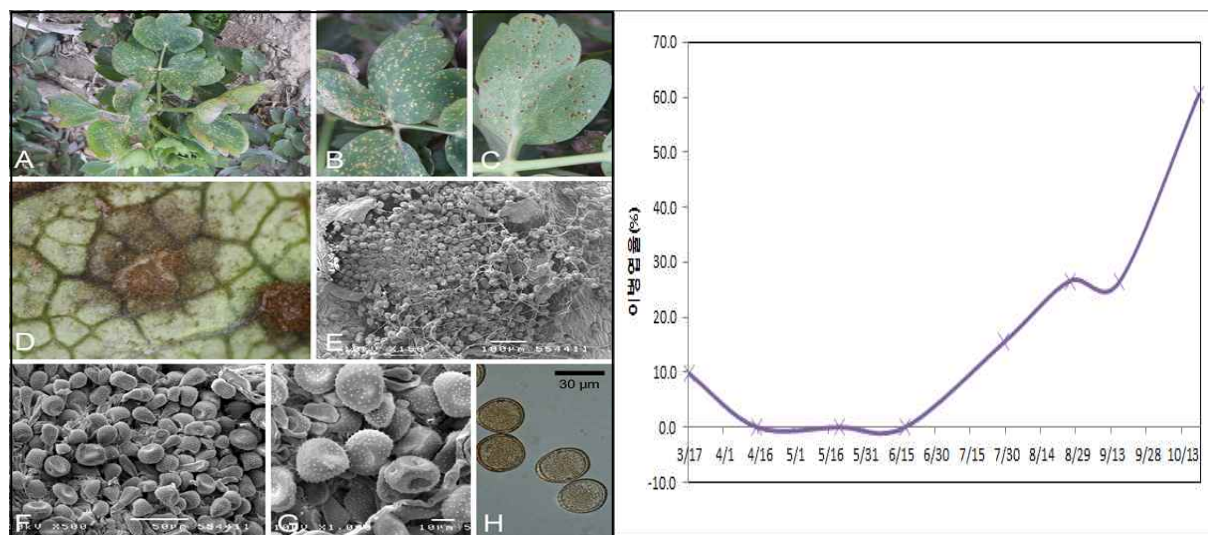
- 잎에 처음에는 황색의 작은 반점으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황적색으로 변한다. 앞면과 뒷면에 병반이 융기되어 주황색 모양의 여름포자퇴를 만들고, 그 안에는 대량의 포자가 들어있다.(그림1 : A, B, C, D)
- 녹병원균은 *Puccinia jogashimensis*이며, 여름포자퇴는 잎 표면의 앞·뒷면에 발생하고, 둥근 원형에서 길쭉한 반구 형태로 표피로 덮여져 있거나, 벗겨진 표피로 둘러 싸여진 형태로 직경은 0.1~4mm이며, 분말형태의 갈색을 띄고 있다. 여름포자는 달걀모양에서 타원형으로 겉 표면에 가시 같은 돌기가 있는 밝은 갈색으로 20~45×15~35μm이며, 벽의 두께는 2~4μm이다. (그림1 : E, F, G, H)

○ 발생생태

- 이병은 7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발생이 증가하고, 작물과 함께 월동하며 아래로 늘어진 오래된 잎에서 주로 발병하고, 심하면 잎이 황화되거나 고사되고 조기 노화를 가져옴

○ 방제법

- 병든 식물체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병든 잎을 조기에 제거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한다. 비료성분이 부족하면 병발생이 심해지므로 3요소 균형 시비를 하고,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주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석회를 알맞게 넣어 산도를 교정한다. 발병 초부터 전용약제를 살포한다.



【그림 1】 주요 병징과 발생소장 (2015)

□ 개발기술 기대효과

- 갯기름나물 녹병에 대한 농가 정보제공 : 병징, 병원균, 발생, 방제시기
- 적기방제에 따른 갯기름나물 녹병 방제 농약 사용량 절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녹병은 7월 중순부터 아랫잎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발생이 증가하고, 작물과 함께 월동하므로 7월 상순부터 예방 방제를 실시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고숙주, 김효정, 최덕수, 마경철

■ 2015년산 전남 농산물 소득분석 조사결과

- 시설재배 ‘오이’, 노지재배 ‘블루베리’ 소득 높다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15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51개 작목 741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재배에서 10a(1,000m²)당 소득은 오이(축성)가 16,071, 파프리카 14,316·딸기(축성) 11,445·시설호박 11,432·방울토마토 10,719·장미 10,260·토마토(반축성) 9,864천원으로 소득이 높았으며, 그 뒤를 딸기(반축성) 9,694·무화과 8,538·시설고추 7,649·멜론(반축성) 5,375·국화 3,702·미나리 3,160·수박(반축성) 2,980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 노지재배 작목에서 10a(1,000m²)당 소득은 블루베리 5,992·구기자 4,585·복숭아 4,415·오디 3,889·사과 3,418·녹차 3,390·노지포도 3,306·참다래 3,296·배 3,267·유자 2,965·조생양파 2,184·단호박 2,176·대파 2,173·노지수박 2,100천원으로 소득이 높았으며, 이어서 시금치 1,781·완두팍콩 1,741·봄배추 1,719·고구마 1,650천원으로 일반 밭작물보다는 과수 분야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28개 작목이었으며 30% 이상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가을감자·대파·노지시금치·양배추·쪽파·조생양파·수박(반축성) 등 10개 작목이었고, 20~30% 증가한 작목은 완두팍콩·노지수박·무화과·배·양봉·엽연초 6작목, 10~20% 증가한 작목은 팥옥수수·고구마·가을배추·파프리카·복숭아·월동배추 6작목으로 나타났다.

- 소득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가을감자·대파·노지시금치·양배추·쪽파는 평년작황 수준 회복과 가격지지 되었기 때문이며, 조생종 양파·수박반축성·봄감자·완두꽃콩·축성딸기·시설국화·참깨·양봉·배는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파프리카·월동배추·축성 오이·반축성토마토·무화과·복숭아 경우 생산량 증가와 가격 지지가 뒷받침되어 전년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다.
- 반면,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23개로 예년에 비해 적었다. 20% 이상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맥주보리·쌀보리·가을무·시설부추·시설장미·시설미나리·단감 등 12개 작목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 요인은 식량 작물과 시설채소는 겨울철 기후조건 불량으로 작황부진과 소비위축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경영연구소 손장환 연구사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목별 소득을 분석해 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어깨동무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작물 소득분석 결과가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 합리적인 작목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난지형 마늘 신품종 '단영' 과 '마영' 육성

- 순한 맛과 생산비 절감이 되는 생마늘용 마늘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우리나라 토종 마늘을 개량한 다수성 신품종 '단영'과 '마영'을 육성했다고 발표했다.
- '단영'과 '마영'은 고품 재래종을 개량한 마늘로써 매운맛이 적고, 당도가 높아 생마늘용 품종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였다.

- 현재, 전남지역에서 재배되는 마늘의 주 품종은 중국 품종인 남도마늘과 스페인 품종인 대서마늘이 주종을 이루어 1970년대부터 재배되어 왔는데, 이후 외국종 마늘에 밀려 품질은 우수하나 수량성이 낮은 우리나라 토종 마늘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5년 우리 토종마늘의 특성을 갖추고 씨마늘 생산에 알맞은 큰 주아를 가진 ‘단영’과 ‘마영’ 신품종이 육성되었다.
- 이들 육성 품종들은 수량성이 남도마늘보다 6~18% 높을 뿐만 아니라 마늘 종대에 맺히는 주아 마늘 크기가 4.7배나 무거운 특성과 종대가 짧은 특성은 기존 마늘품종과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마늘 재배면적이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여건에서 다수성 마늘인 ‘단영’과 ‘마영’은 우리나라 마늘 수급 차원에서도 환영받을 품종이며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씨마늘은 주로 인편을 심기 때문에 10a당 150만원 정도의 씨마늘 값이 소요되어 일부 농가에서는 큰 주아를 심어서 씨마늘을 생산함으로써 종자 값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남도마늘에 비해 큰 주아 생산량이 4배 이상 많은 ‘단영’과 ‘마영’ 품종은 0.5g 이상의 큰 주아를 심을 때 당년에 씨마늘을 생산할 수 있어서 주아재배에 아주 적합한 품종이다. 이러한 큰 주아 재배로 마늘 생산비를 30%정도 절감할 수 있어서 마늘 재배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어깨동무 컨설팅’기법 도입한다

- 경영기록장 기록농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컨설팅 추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경영기록장 기록농가와 작목별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컨설팅 기법을 올해부터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에 귀농인, 친환경 농가, 품목별 연구회 등에서 경영기록장 기록 및 활용법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여,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경영기록장이 기록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개발한 기법으로 일명 ‘어깨동무 컨설팅’이라 불린다.
- ‘어깨동무 컨설팅’ 기법은 참여농가 상호간 기록내용 공유를 통해 본인의 기록수준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경영개선 동기를 부여하게 되며, 경영기록장에 기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배기술, 토양, 병해충, 경영 등 작목별 전문가 4~5명이 함께 합동으로 여러 농가를 컨설팅하게 된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1차 ‘어깨동무 컨설팅’을 6월 23일 사과 재배 농가 9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컨설팅 요구도가 높은 참다래·토마토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차적으로 품목별연구회와 작목반까지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 임경호 농업경영연구소장은 “경영기록장 기록은 농가들의 경영개선 활동의 첫걸음이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 필수 조건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컨설팅이 경영기록 농가들의 경영개선 활동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더위에 잘 자라는 배추·무·상추 품종 평가 받아

- 농촌진흥청,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엽근 채소 현장평가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더위에 강한 배추·무·상추 등 엽근채소 품종 평가회를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실시했다.
- 행사에서는 소포자 배양기술 등을 이용해 개발한 순도 높은 무 12계통과 배추 11품종, 상추 19품종을 소개한다.
- 배추는 여름철에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고 더운 기후에도 잘 자라며 구 형성이 빠른 품종을 개발했다. 올해 새 품종 후보인 '원교20048호'는 소포자 배양으로 육성한 고순도 품종으로 더위와 추위에 강하다. 속잎이 노랗고 얇으며 구의 크기가 중간 정도로 김치 담그기에 좋다.
- 새품종 후보인 '원교20049호'는 항암, 항균, 살충 작용을 하는 유용한 기능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총 함량이 45 μ mol/g dry wt으로 대조 품종인 '원교20036호'의 7 μ mol/g dry wt보다 월등히 높고, 작년에 전용 실시된 '원교20037호'의 42 μ mol/g dry wt 보다도 약간 높다.
- 무는 초록색인 '원교10053'호와 봄, 여름 재배를 위해 추대가 늦은 계통인 '원교10038호'가 소개된다. '원교10053호'는 초록색으로 특이하며 당도가 높은 계통으로 작년 가을에 선발한 새 품종 후보이다.
- '원교10038호'는 단타원형으로 봄철 추대가 늦고 순도가 높아 봄무 또는 여름무 품종 개발 시 양친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상추는 봄, 여름, 가을재배가 모두 가능한 품종과 여름철 고온기 생리장해가 적은 품종 등 다양한 품종을 개발, '춘하추' 등 19품종과 육성 중인 상추 212계통을 공개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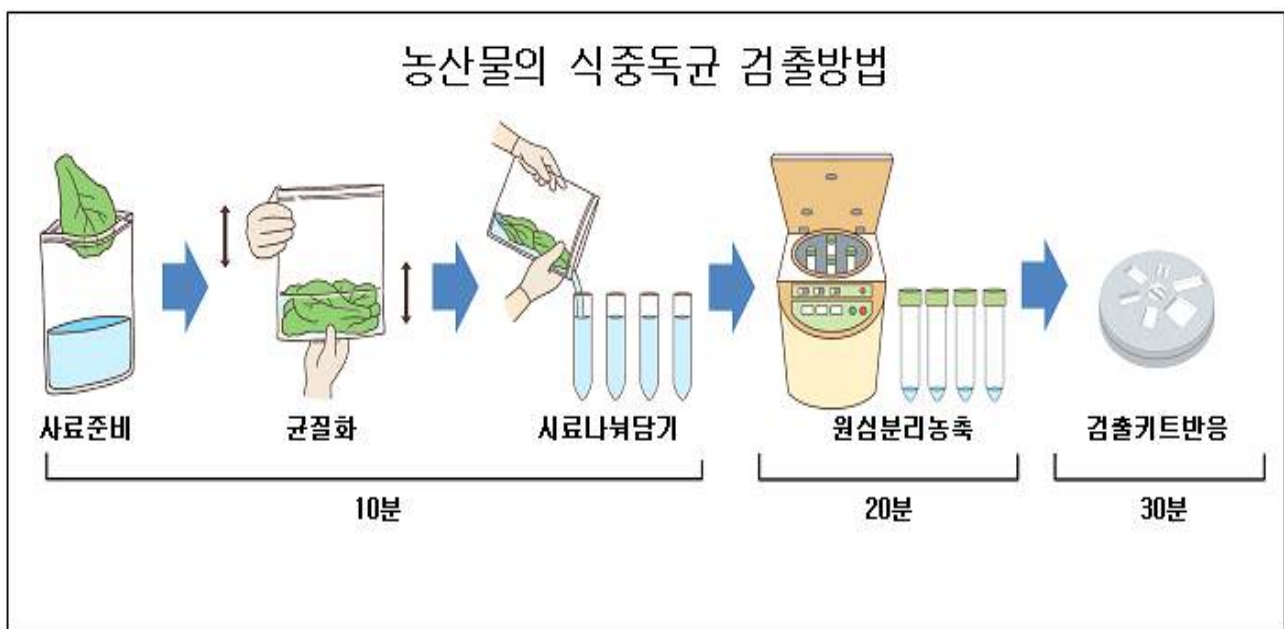
■ 농산물 식중독균 5종 1시간 내 검출한다

– 농촌진흥청, KAIST·전북대와 ‘농산물 식중독균 검출키트’ 개발 –

- 농산물에서 식중독균 5종을 1시간 이내에 간편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KAIST, 전북대와 공동으로 식중독균 5종(병원성대장균 O157,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을 1시간 안에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농산물 식중독균 검출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검출키트는 지름 8cm 크기의 전화 다이얼 모양의 종이 기반 감지기 위에 시료를 넣고 돌리면 중앙의 원 안에 임신 진단키트처럼 청색 선이 보이면서 식중독균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감지기에는 식중독균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 항체(또는 항체 대체제)가 배열돼 있으며, 나노입자를 이용해 발색반응을 유도해 종이 위에 청색 선의 표시 여부에 따라 식중독균의 존재를 판정한다.
- 이 검출키트는 기존에 2~3일 걸리던 표준검사법인 선택배지법에 비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또 기존의 유전자진단법 등 신속검사법의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 검출키트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

- 이 검출키트를 이용하면 유통과 섭취 기간이 짧은 신선 농산물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신속,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식중독균의 확산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또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농산물의 생산 및 세척, 소독, 건조 등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농산물 식중독균 검출키트를 내년 중으로 기술이전 해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실용화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전남 서리강풍 피해 복구비 21억 확정

- 매실 꽃봉오리 고사, 참다래 가지 부러짐에 예비비 등 신속 지원키로 -

- 전라남도는 지난 3월 초순 서리와 5월 중순 강풍으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에 대해 20억 5천 200만원의 복구비 지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 이는 전라남도가 서리와 저온으로 인한 매실 피해와 강풍으로 인한 참다래 피해를 조사한 결과 농업 재해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서리 피해는 순천·곡성·고흥·보성지역 1천 130ha의 면적에서 매실 꽃봉오리가 고사되는 등 착과 불량에 나타났고, 강풍 피해는 보성지역 참다래 35ha에서 과수 가지가 부러졌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복구비 지원은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있을 태풍, 호우 등 농업 재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도 배수로 정비와 농업 시설물 묶어주기 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전남의 매실 재배면적은 3천 938ha로 전국(5천 700ha)의 69%를, 참다래는 529ha로 전국(924ha)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업과 에너지가 만나 새로운 희망을

-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공동개발 추진 -

- FTA,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위하여 전라남도과 한국전력공사가 손을 맞잡고,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ICT 융복합 스마트팜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 전라남도과 한국전력공사는 1단계로 지열, 온배수 히트펌프, 태양광,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농업용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시설을 운영하여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로 개발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농가 보급형 사업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 기술을 수출하고 더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거래권도 확보할 계획이다.
-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는 농업은 온도와와의 전쟁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농업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농사용 전기 소요비용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확보에 따른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저탄소 농업실현으로 생산물을 차별화하고 전남의 친환경농업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은 농업과 에너지의 경계가 무너지는 날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국립축산과학원·전남농기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축산환경 개선 공동연구를 통해 가축 분뇨 및 냄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6월 21일에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환경 개선방안 협의, 축산냄새 저감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공동세미나·토론회 및 컨설팅 실시,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으로 전라남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 금번 협약 체결은 축산농가 인근의 주민들의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과 환경법에 의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가축분뇨 냄새 발생을 줄이는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축산농가에 보급하고자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축산환경과)과 전남농업기술원(축산연구소)은 1개월간(2016. 6. 8. ~ 7. 6.) “무창 육계사 내·외부 냄새 저감 장치 및 물질을 이용한 효능 평가”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박상국 소장은 “2013년부터 자체개발한 미생물을 산업화하고 축산현장에 적용하여 호평을 받았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업을 통해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교실 밖 농촌선생님 전문성 키운다

-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기초과정 운영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업인들의 농촌체험학습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농업인 41명을 대상으로 농촌 교육농장 교사양성 기초과정을 운영하였다.
- 이번 교육은 농촌교육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농촌교육농장의 개념과 원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과과정과 연계된 마인드맵 작성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농장을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체험학습 방법을 최고 전문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보다 수준 높은 교육농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황수정 농촌지원과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이 주는 소중한 생명과 가치를 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 교육농장 운영자들의 교육적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57개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했으며, 이중 20개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업용 면세유 관리강화 및 판매가격 투명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면세유 판매업소간 가격경쟁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그리고 가격표시 방법개선으로 판매가격 투명화에 나선다.
- 면세유 배정(사용)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하여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는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개인소유로 생각하여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하여 부정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세유류 사용기한을 분기단위로 조정한다.
- 또한, 면세유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하여 가격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면세유 판매업소 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면세유 부정사용,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베트남 신선딸기 시장동향 및 수출전략(하)

- 딸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요 소비계층을 대도시 뿐만 아니라 2선 도시(2015년 현재 41개)까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각 도시별로 최대 상권은 고소득 계층이 밀집한 지역이고,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유통구조가 발달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판로가 단순해 타지역에 비해 매출이 유리한 편이다.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채널을 단일화해 판매하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 매출 상승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이 요구되는데,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우리 딸기를 소개하는 홍보물 배포 및 시식행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우수고객을 초청한 홍보행사, 스폰서 활동 수행 등 현지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오프라인 미팅이 병행돼야 하며, 현지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광고 및 박람회 참여활동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기념일이 많은 베트남의 특성을 고려해 각 기념일마다 선물용 포장과 특별 프로모션 행사를 연계한다면, 기념일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 베트남의 온라인 마켓 진출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판매 및 구매가 더욱 쉽고 편리해졌으며,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점차 온라인 마켓 소비로 구매패턴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들도 점차 온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매장운영을 통해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베트남 소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며, 매일 먹는 과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문적인 온라인 매장운영이 중요한 이유다.
- 베트남 내 다수의 온라인 매장은 품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유럽·미주 등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판매제품 모두 실제 이미지와 함께 소개되고 있고, 각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공개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수입과일의 가격은 베트남 소비자의 평균 소득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주로 특별한 날에 친구와 친척, 사업 파트너에게 선물 등의 용도로 구입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 맛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먹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사·진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제품의 신뢰도 및 안전성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과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딸기 또한 매장마다 식품안전성 인증 및 원산지 표기를 한다면, 더욱 많은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산 딸기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환불 및 교환을 해주는 영업 전략을 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한국산 딸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중국 외식업체, 한국산 김치·장류 구매 원해

- ‘한국산 식재료에 대한 중국 외식업체 경영자 설문조사 보고서’ 발표 -

- 중국 현지 외식업체들은 김치·장류 등의 한국산 식재료 구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외식업체들에게 한국산 식재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뒷받침돼야 활발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중국 농식품수출 적용기술 모델개발 사업단(이하 대중국농식품수출사업단)이 최근 발표한 ‘한국산 식재료에 대한 중국 외식업체 경영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외식업체들이 원하는 한국산 식재료 주 구매 품목은 김치(59.6)와 장류(57.1)로 나타났다. 뒤이어 채소류(28.6)와 수산물(18.6%)에 대한 수요도 확인됐다.
- 하지만 중국 외식업체들은 한국산 식재료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설문에 응한 외식업체들의 91.4%가 한국산 식재료를 ‘구매해 본적 없다’고 답했다. ‘구매하고 있다’(2.9)와 ‘구매해 본적 있다’(5.7) 등 ‘구매 경험이 있는 곳’은 8.6%에 그쳤다. 이는 한국산 식재료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실제 구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다만 한국산 식재료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중국 외식업체들은 한국산 식재료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최우선 요인으로 ‘한국산 식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67.8)을 꼽았다. ‘적절한 가격’(12.5)과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개발’(5.9), ‘편리한 구매경로’(5%) 등이 뒤를 이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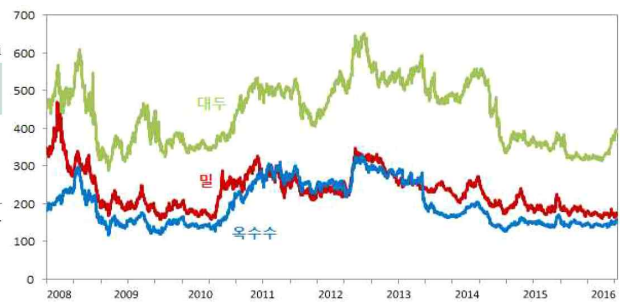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6. 27.(시카고 선물거래소)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곡물 선물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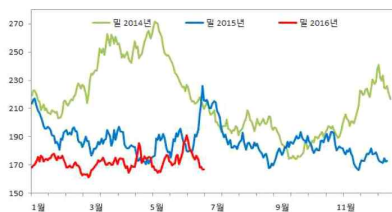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06.24)	전일대비	전월평균 ('16.5)	2015 평균
밀	167.03	▲0.1%	188	186
옥수수	151.33	▼0.7%	148	148
대두	405.28	▼1.9%	353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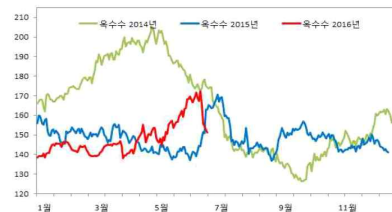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밀 선물가격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부셸 당 \$4.54에서 약 0.5센트 상승하였음. 지연된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계약은 하락하여 마감하였음. 한 주간 밀은 3.3% 하락하였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리의 제분용 밀은 톤당 160.25유로에서 0.8% 상승하였고, 런던의 사료용 밀은 톤당 120파운드에서 4.8% 상승하였음. 이는 유로화와 파운드와의 약세로 인한 결과임.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 가격 또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인한 상품과 증권시장의 약화로 인해 전일 대비 0.7% 하락하여 마감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3.82에서 약 4센트 하락하였음. 한 주간 옥수수 가격은 12.6% 하락하였음. 이는 지난 3년래 가장 큰 주간 하락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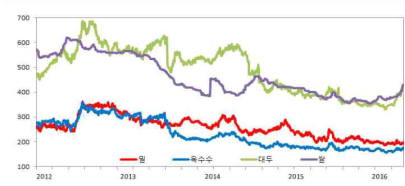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의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미국산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9% 하락하여 마감하였음.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이나 달러 같은 경우 상승한 반면 증권시장과 상품시장은 급격히 하락했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 당 \$11.07에서 약 17센트 하락하였음. 한 주간 대두 선물 가격은 총 5.8%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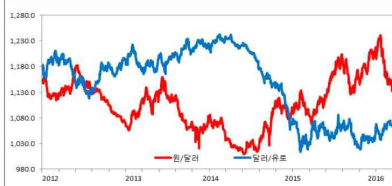
관련동향

- 옥수수와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보험세를 유지함.
- 24일 국제유가는 브렉시트(Brexit) 결정으로 인한 미 달러화 강세와 주요국 증시 약세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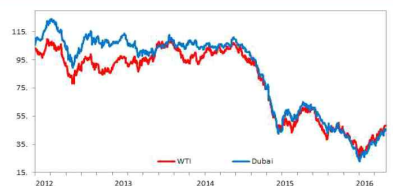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7	환율	원/달러	1,151.2
	옥수수	182		달러/유로	1.1335
	대두	446	국제유가	WTI	47.64
	쌀	425		Dubai	45.47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8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6.23(수출가격), '16.06.24(환율), '16.06.24(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태풍 대비 농작물·시설물 관리요령

○ 벼 : 뿌리를 튼튼히

- 유수형성기(이삭이 3~5cm 정도 자라서 꽃밥 속에 생식세포가 나타나는 시기) 이전에 중간물떼기(논을 실금이 날 정도로 말리는 것)로 무효분얼(헛가지가 되는 것) 억제 및 새뿌리 유도
- 출수기(이삭이 나오는 시기) 이후 태풍 통과 시 가능한 물을 깊이 대어 도복(쓰러짐) 피해 경감
- 침수된 논은 조기 배수, 바닷물 침수 시 조기 환수, 병해충 방제 등

○ 밭작물

- 개화기 전까지 생육이 과번무(잎만 무성하거나 뿌리, 열매가 잘 안된 작물) 포장 순지르기(가지나 꽃·열매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 실시
- 지주시설 설치 및 보강으로 도복(쓰러짐) 피해 예방
- 쓰러진 농작물 세우기(1~2일 이내), 김매기를 겸한 곁흙 긁어주기로 뿌리 활력촉진

○ 과수

- 바람에 의해 찢겨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유인하여 묶어주고, 늘어진 가지는 받침대를 받쳐 줌
- 사과 밀식재배 등 시설재배에서는 철선 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점검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채소

- 고추는 줄 지주, 개별 지주를 보강하여 쓰러짐을 방지
- 피복한 비닐이 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
- 병,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을 촉진
- 수박 등 덩굴이 꼬인 포기는 펴주고, 덩굴 간격을 알맞게 관리

○ 축산

- 비바람으로 쓰러진 사료 작물은 비가 그친 후 곧바로 베어서 담근 먹이로 하고, 후작으로 연맥(귀리), 유채 등 사료 작물을 파종
- 땅이 질고 습한 경사 초지에서는 일정기간 방목을 중지하고 목초 피해 및 토양 유실 방지
- 축사의 습도 증가는 에너지 소모를 현저히 증가시켜 가축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한 통풍 환기 및 수시 분뇨 제거로 유해가스 발생 방지
- 오물 확산 방지를 위한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 점검
-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시 방역기관 신고 및 방역 등 신속한 조치
- 전염병에 의한 폐사축은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
- 축사 주변 배수 및 소독 철저로 질병 전파 방지

○ 농업시설물

- 태풍피해 예상 시 농기계, 기자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 태풍통과 시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고정 끈으로 고정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 예방

-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및 파손 비닐 재피복, 시설물 보강

- 복구가 가능한 하우스 신속히 복구, 불가능한 하우스는 조기 철거
- 시설재배 작물은 별도 육묘상을 설치하여 안전 육묘
- 양액재배 시설 침관·수 시 베드 청소 및 소독 실시 후 양액공급 또는 작물재배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91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